

[특별기고]대전문화재단에 바란다

김대중 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연구원

2009년 10월 06일 (화)

충청투데이

21세기는 문화시대이고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라 안팎에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가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문화재단의 출범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또 지역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 거버넌스 기구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현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대전문화재단 출범에 부처 몇 가지의 당부 사항을 두서없이 얘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문화 복지의 실현 과제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앞세운 공공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화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균등한 문화 혜택 제공이며 또한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지원사업 계획이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소득 및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추세이다.

두 번째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현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 행위나 사업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특화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의 연구 및 제안 등도 문화재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력관리 문제이다.

문화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가 조직구성이다. 필요한 인재를 엄선하여 어떻게 재단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문화재단 운영의 성패가 달렸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틀 속에 얽매어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재단과 함께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생각된다.


창의적이고 개방된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발전을 위한 식지 않는 열정을 소유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단이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내일 당장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종합선물세트를 선택 던져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 때까지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는 문화재단에 대해 최대한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신(新) 문화도시의 창출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관 모두가 어깨동무를 한 동반자 관계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